

“5·18, 학문으로 정립” 5·18 학회 만든다

전남대 5·18 연구소 9~10월께... 학계·재야 연구가 등에 개방 “전국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구 공유하고 교류 한계 극복할 것”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관련 연구와 연구자들을 아우르는 학회가 결성된다. 전남대 5·18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9-10월께 전국 5·18 연구자들을 모아 '5·18 학회'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집담회 등을 통해 5·18 연구자들과 5·18 학회를 설립하고 관련 학문을 '5·18 학(學)'으로 정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학회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5·18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회가 결성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5·18 연구자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기별로 학술대회를 열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 5·18연구자 양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5·18 연구는 법학·사회학·심리학 등 분과별로 연구 내용이 분절화돼 있었

으며 5·18 연구자들 간 연구 내용 공유 및 교류가 파편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학회가 설립되면 다른 학회와 연계해 국가폭력, 인문학, 호남학, 법학 등 타 학문과 연계한 연구를 촉진하는 등 5·18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학회에 제도권 연구자뿐 아니라 재야 5·18 연구자, 기자 등 5·18의 연구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학회 결성의 첫 걸음으로 오는 23일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44주년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3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1회 5·18연구자 대회'를 열 계획이다. 학술대회에는 11개 세션에 발표자 35명, 토론자 포함 88

명의 연구자가 모일 예정이다. 학술대회 발제와 토론 주제에서는 5·18 담론이 다양한 학문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오롯이 드러나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5·18진상조사위 활동의 성과와 한계, 남은 과제부터 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전쟁·국가폭력과 평화, 5·18정신과 혁명·저항, 정신계승, 5·18과 연관된 재외동포 사회, 역사 왜곡과 과거사 청산, 5·18 관련 젠더 커뮤니티 등 주제로 세션이 열린다. 5·18연구소 측은 “파편화한 학문을 한 데 모아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5·18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학회를 결성하기 전 학회가 광주,

1980년 5월 등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충분한 확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5·18연구자는 “학회를 결성하고 '5·18학'을 정립하면, 이는 한국 이행기정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 전국, 전세계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하나의 참조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광주와 1980년 5월이라는 5·18의 시·공간적 특성을 학문을 한정시키면 지역학문으로 정형화되고, 고립된 학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동시에 갖춰야 다른 학문과 연대하는, 확장성 있는 5·18학, 5·18학회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물놀이 신나요 초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21일 광주시 북구청 앞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쌍방향 원격수업’ 전남온라인학교 내년 개교 추진

도교육청, 6월 학교명 공모

전남교육청이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한 온라인학교(가칭 전남온라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은 없지만,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지역 고교생에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중심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심화선택 과목을 운영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공립 각종학교이다. 목포여고고등학교 기숙사동 및 과학동의 리모텔링과 증축을 통해 설립한다.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학교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이뤄지며, 1강좌 당 15명씩 총 24강좌 360명의 학생이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과목 개설과 운영, 평가·기록 등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공동교육과정 기준을 준용하며,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학교에서 이미 개설된 과목 이외에도 개별 고등학교가 온라인학교에 과목 개설을 의뢰할 수도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TF를 꾸려 온라인학교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 중이다. 온라인학교에는 정규 교원이 배치된다. 과목 분야에 따라 외부강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1인 온라인스튜디오 및 라이브버추얼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등 미래형 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오는 6월 공모를 통해 교명도 선정한다. 9월 중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9월 중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 지역 고등학교의 2025년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발달장애인·가족 죽음방지책 마련을”

광주 장애인단체 대책마련 촉구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숨진 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장애인과 가족이 발달장애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21일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힘들어 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들이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함을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이 가족들은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겨 최후까지 주변을 배려했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이들을 끝어

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2022년 5월 여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30대 조카의 폭행으로 숨졌고 지난해 9월 영암군에선 아버지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3명과 아내를 모두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우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복지당국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세심한 지원과 돌봄,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코로나 거치며 지역 인권 보호망 위축”

광주인권사무소 토론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역인권 보호망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21일 광주시 동구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지역 인권옹호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인권옹호 활동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활동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인권옹호 활동과 인권행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박성훈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 팀장은 “코로나19로 인권연대 활동에 직격탄을 맞았고 혐오세력이 성장했다. 제도적 활용과 권력화를 통해 인권운동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광주인권사무소의 과제와 관련, “인권 정책이 지역으로 확장되려면 인권사무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단체에는 지역 인권의 제 발굴과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권옹호 활동의 미비점도 거론했다.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혐오’와 ‘젠더갈등’이 최근 이분법적 관념으로 성평등을 훼손하고 정치화까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성평등의

미의 재정립을 비롯 여성인권옹호활동가와 시민단체 내부 성찰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권옹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흥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은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광주’가 어떤 의미가 묻는 것처럼, 인권 옹호활동 수행하는 인권 활동가도 ‘광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게 중요하다”면서 “‘광주’라는 지역사회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함께 ‘옹호활동’을 수행하는 ‘광주’ 인권 활동가들은 ‘가장 늦게 걷는 사람의 속도’와 호흡에 맞춰 걷는 여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